



인도 꼴까따의 꽃시장 인도의 새해는 꼴까따(Kolkata)시의 꽃시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날 초 인도 동부 벵골 지방의 주도인 꼴까따시의 자간나트(Jagannath) 시장에서 꽃을 사고 파는 시민과 꽃들이 한데 엉켜 색색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꽃 목걸이는 힌두교도들이 신에게 바치는 화환으로 사용되며 자간나트의 다른 이름인 크리슈나신에 대한 찬양과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13면 대하시리즈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인도편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사 창사 61주년 캠페인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희망의 해**

광주·전남을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1952년 창사 이래 61번째 무등산 자락에서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 해 온 광주일보사는 무등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무등산 포럼' 정례화

지역민들이 국립공원 무등산의 운영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럼'을 설립·운영합니다. 또, '토론의 장'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립공원 운영 및 자연생태 보전 방안을 찾겠습니다.

'무등산 지킴이상' 제정 시상

무등산 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시민, 그리고 무등산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지역인사들도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 다양한 행사

무등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무등산 사진전, 국립공원 승격기념 전국 스포츠를 라이미대회, 유·청소년 숲 체험 및 증강현실을 위한 '무등산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장기 시리즈 연재

무등산에 숨어있는 역사와 볼거리 등을 발굴해 전해드립니다. 또, 세계 유명 국립공원의 조성과정 및 운영방법 등을 집중 취재, 연재함으로써 국립공원 무등산의 과제 및 해결방안,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새정부 지역공약 이행 로드맵 급하다

특별법 등 법안 제·개정, 예산 지원계획 세워야 광주시·전남도, 세부 추진 과제 선정 반영 총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고 새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박 당선인이 제시했던 광주·전남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발전 공약 이행은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박 당선인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공약 중 일부는 특별법 제·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과 관련한 일부 공약은 아직 사업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박 당선인의 공약사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

제·개정과 국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등 법 제·개정이 우선 되어야 할 공약으로는 광주 '탄소 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과 전남의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사업' 등이 있다.

우선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및 조세 감면 등 관련법의 제약을 벗어나는 특별법 제정이 뒤따라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도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지원법에는 순천만이 관광특구로 포함되지 않아 자칫 여수와 순천을 쪼개는 '반쪽'짜리 관광특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와 땅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수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J프로젝트도 땅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 또한 연차별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 당선인의 광주지역 첫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의 경우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확보가 시급하다. 부지가 조성되어야 공장이 들어서고, 부품 업체들이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50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국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지만, 삭감됐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은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건의해왔고 타당성 또한 상당부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사업들이다.

반면, 광주~안도 간 4차선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잇는 가장 한라대교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향후 5년은 물론 수십 년 뒤 호남권 미래발전의 중대 현안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 출범과 함께 법안 제·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시급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와 협조를 통해 공약 실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해수부 부활때 수산청 여수로 수산인협회 유치 활동 나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 지역민들이 "수산 1번지인 전남에 수산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수산인협회는 14일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뛰어든 예정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수산청을 총괄하는 수산청은 여수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로 기반시설이 구축됐고, 오는 7월 개교하는 해양경찰학교와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연관기관이 위치한 여수가 수산청 입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분석 결과, 도내 수산물 생산량은 85만5000톤으로 전국 생산량(155만8000톤)의 55%를 차지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미확보 예산 315억원 광주시·전남도 "이대론 재정 파탄"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첫 시행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5개 구가 미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해 올 하반기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및 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7조 949억원으로 예초 정부안 5조6786억원보다 1조416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조6157억원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 3조4792억원에 비해 1365억원이 많은 액수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 대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9대 51(광주·전남은 60대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올해 0~5세 보육예산이 예초 195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48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액 중 국비 추가 지원액인 29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195억원(시비 136억·구비 59억)을 추

가로 확보해야 할 판이다.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20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의 추가로 지역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전면 무상보육 시행전인 지난해에도 11월들어 수십억원의 보육예산이 부족해 신용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남도의 올해 보육예산은 총 2857억원으로 지난해 1952억원보다 905억원이 늘어났다.

전남도 분청과 일선 시·군은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60억원씩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시·도는 또 현재 보육예산이 확정액이 아닌 추정액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육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무상보육 중단은 물론 지방재정의 파탄까지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예산에 확대된 보육예산까지 감당하라고 해 예산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보육예산만큼은 전액 국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C-Class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용량 *C220(1812kWh, 173hp, 자동기, 배양연비 15.0km/l, 도심연비 13.3km/l, 고속도로연비 19.3km/l), 2문형, 배양(1) 배양량 125kg *C200(170kWh, 120hp, 자동기, 배양연비 11.8km/l, 도심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3.6km/l), 4문형, 배양(1) 배양량 125kg *C250(249kWh, 162hp, 자동기, 배양연비 10.0km/l, 도심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4문형, 배양(1) 배양량 170kg *C63 AMG(305kWh, 408hp, 자동기, 배양연비 8.9km/l, 도심연비 6.9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4문형, 배양(1) 배양량 277kg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조건, 운전방법, 차량에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